

# 방화의 여러 유형

송재철  
(화재조사 전문가)

서울 신림동에 사는 무직자 김호근(가명, 22세)은 인근에 사는 강영남(가명, 28세)씨 가족이 구정 명절을 지내기 위해 귀향하고 집이 빈 틈을 타서 강영남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잠겨진 방문을 부순 뒤 장농을 뒤져 카메라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150여 만원 어치를 훔치고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장농에 불을 놓아 가재도구 등 84만여원어치를 태우고 도주했다.

자물쇠의 파괴상태와 귀금속류의 분실 등을 근거로 수사중에 범인 김호근이 훔친 물건의 처분을 위해 시장을 배회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류의 출처를 추궁받음으로써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절도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방화의 예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H민예협회장 남일수(가명, 42세)는 가짜 고서화를 제작 판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피소되었으나 출두에 불응함으로써 수배됐다. 표구방인 P아파트 503호의 거처가 봉인되자 사기행위의 증거물들인 가짜 고서화들을 인멸할 목적으로 맥주병에 휘발유를 담아 아파트 표구방 창문으로 던져 넣고 방화하여 서화와 서류, 집기들을 소해시켰다.

결국 남일수는 사건발생 100여 일만에 검거됨으로써 사건전말을 밝히게 된 일도 있다.

A체육고등학교의 보일러공인 J는 2급 열관리 기능공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Y라는 자격증도 없는 보일러공의 월급보다 5만원이나 적은데 대해 항상 학교측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J는 Y 등 3명과 화투를 치면서 6,800원을 잃은 차에 숙직교사가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화투를 못치게 돈을 딴 Y를 데리고 나가는데 화가 난 J는 평소 학교에 대해 가졌던 나쁜 감정이 일시에 솟구쳐 보일러실 송유관에서 경유를 뽑아 보일러실 옆

체육 자재실에 쌓아둔 매트리스와 공기마니 등에 뿌린후 방화하여 학교에 기숙하고 있던 학생들 중 7명이나 사상(사망2명)에 이르게 하였다. 현장의 발화부가 여러곳이고 유증이 확인됨으로써 방화로 판단하고 이재관계자들의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해 검거케 되었다.

청소년층의 치기스러운 방화는 농화(弄火)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의협심의 발로로 17세의 소년이 1주일간 4차례에 걸쳐 동네 벗짚단더미에 연쇄방화한 일이 있다. 몇 차례에 걸쳐 벗짚단 천여몽치가 뒹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큰 것은 결코 아니나, 몇차례나 동네가 시끌시끌했으니 공공위해 범죄로서는 충분한 것이었다.

이 소년은 동네 김씨 할아버지 집에 고용살이를 하고있던 지능이 좀 모자라지만 마음씨 착한 이씨(32)가 마을 앞 들관에 쌓아놓은



벗겨내기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알고 누명을 벗겨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그럼으로써 이씨가 다시 마을로 되돌아 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을 질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소년이 방화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평소 신병으로 앓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해 순진한 이 소년은 엉뚱하게도 더 큰 연쇄비극을 만들게 되어버렸다.

김만수(가명)라는 14세난 소년은 모중학교를 1학년 중퇴하고 벌써 절도전과가 2번이나 있는 소년이다.

세들어 있는 집의 주인인 우씨 할머니의 외손자 정성웅(가명, 22세)씨가 평소에 사람 좀 되라고 타이르는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새벽 한시경에 자기집 부엌에 있는 플라스틱 석유통에 있는 석유를 종이에 묻혀 옆 셋집방에 걸린 의류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이 발미가 되어 검거되었지만 김군은 이미 이웃집, 공장, 점포 등에서 있었던 3차례의 화재사건도 자신이 같은 방법으로 방화하였음을 밝혔다. 들키지도 않았고 재미도 있었거니와 잘 사는 집을 보면 괜히 불을 지르고 싶었다는 것이다.

모 중학교 3학년 학생인 K군은 학교시험이 다가오지만 공부가 되질 않아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학



교에 불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야밤에 학교에 방화를 했는데 관할경찰서에서는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이라고 처리해버리자 자기가 낸 방화를 전기누전이라고 한데 대해 이상심리라고나 할까, 여하튼 화가 발동되어 재차 방화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10대 방화는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방화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방화동기는 참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대부분이 사회생활에 자신이 부족한 심약한 사람들이 많다. ㉞